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4년 3월 6일

회 사 명 : 롯데케미칼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허 수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51 롯데타워  
(전 화) 02-829-4114  
(홈페이지)<http://www.lottech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정 순 호  
(전 화) 02-840-0330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8기 정기)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제38기 정기)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3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소재)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선임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3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1명, 사외이사 3명)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

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주주총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님의 의결권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참석> 신분증, 도장

<대리참석> 위임장(주주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2.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3.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9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송부시한> 2014년 3월 14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

###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년 3월 21일 개최하는 롯데케미칼(주) 제38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직 접 행 사	대 리 행 사	불 행 사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주식수			

2014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 (인)

실질주주 주소 :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조승식 (출석률: 100%)	금동화 (출석률: 80%)	서현수 (출석률: 100%)	김경하 (출석률: 100%)	정해왕 (출석률: 67%)
			찬반여부				
2013년 제1회	2013.01.17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처분(안)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013년 제2회	2013.02.04	제1호 의안 : 제37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37기 영업보고서(안) 제3호 의안 : 2013년 경영계획(안) 제4호 의안 :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총액 승인(안) 제5호 의안 : 유방아성호석 합자사 변경(안)	찬성	찬성	신규선임 (2013.03.22)	찬성	찬성
2013년 제3회	2013.03.04	제1호 의안 :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2호 의안 : 이사회규정 개정(안) 제3호 의안 : 삼박LFT/삼박/하오기술 합병에 따른 신주 취득(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3년 제4회	2013.03.22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안) 제2호 의안 : 도쿄지사 설립(안) 제3호 의안 : 뉴욕지사 휴스턴 이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임 (임기만료)
2013년 제5회	2013.05.03	제1호 의안 : PE축매 공장 신설(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3년 제6회	2013.06.24	제1호 의안 : 국제빌딩 잔여지분 취득(안) 제2호 의안 : 재산종합보험 갱신(안) 제3호 의안 : LOUK 대여금 출자전환(안) 제4호 의안 : BR합작사업 부채보증 한도 증액(안) 제5호 의안 : 회사채 발행(안) 제6호 의안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안)	찬성	불참	찬성	찬성	
2013년 제7회	2013.07.29	제1호 의안 : 해외투자보험관련 담보계약(안)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3년 제8회	2013.09.09	제1호 의안 : ㈜한주 주식 추가 매입(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3년 제9회	2013.11.25	제1호 의안 : 이소프랜 사업(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운영자금 한도 증액(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3년 제10회	2013.12.16	제1호 의안 : 2014년 경영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LOUK 지급보증(안) 승인의 건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위원장 조승식 위원 정해왕 위원 금동화	2013.03.04	부의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서 작성 2) 2012 사업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3)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보고사항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1) 2012년 외부감사인의 결산감사 중간검토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위원장 조승식 위원 금동화 위원 서현수	2013.06.24	보고사항 1) 2013년도 1분기 외부감사인의 결산감사 중간검토 보고	가결
		2013.11.25	보고사항 2013년도 2분기 외부감사인의 결산감사 중간검토 보고	가결
		2013.11.25	보고사항 2013년도 3분기 외부감사인의 결산감사 중간검토 보고	가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허수영 위원 조승식	2013.03.04	제1호의안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사외이사 후보자 : 서현수)	가결
내부거래 위원회	위원 서현수 위원 김창규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4	25,000,000,000	247,833,400	61,958,350	

※ 주총승인금액 :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총 7명)뿐만 아니라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임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제품 수출 및 원자재 수입 등	롯데상사(주)	2013.01.01-2013.12.31	29,356	30.90%
제품 판매 및 원재료 매입	대산엠엠에이(주)	2013.01.01-2013.12.31	5,554	5.85%
원재료 매입	(주)씨텍	2013.01.01-2013.12.31	3,640	3.83%
제품 판매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2013.01.01-2013.12.31	1,579	1.66%
제품 판매 및 원재료 매입	(주)케이피켄텍	2013.01.01-2013.12.31	1,572	1.65%

주1) 상기 거래금액은 매입·매출액의 합계액임

주2) 비율은 K-IFRS 별도 재무제표의 2011년도 말 총자산액에 대한 비율임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제품 수출 및 원자재 수입 등	롯데상사(주)	2013.01.01-2013.12.31	29,356	30.90%
제품 판매 및 원재료 매입	대산엠엠에이(주)	2013.01.01-2013.12.31	5,554	5.85%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등의 올레핀제품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등의 방향족계 제품 및 이들 기초유분을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등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소재 산업으로 자본집약적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 ① 기초유분 부문

기초유분 제품은 납사 분해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C4유분, 벤젠, 톨루엔 등의 제품과 M-X를 원료로 하여 P-X, 벤젠 등의 제품을 말합니다. 이 제품을 다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폴리머 제품과 스타이렌모노머(SM), 부타디엔(BD), 에틸렌글리콜(EG), 고순도 이소프탈산(PIA), 고순도테레프탈산(PTA) 등의 모노머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며, 잉여제품 및 부산물 등은 판매합니다.

###### ② 모노머 부문

모노머 제품은 납사 분해설비를 통하여 생산되는 기초유분을 원료로 생산되는 액체상태의 제품입니다.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기타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탱크로리와 선박을 이용하여 주로 화학업체에 판매 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시황은 수요와 공급외에도 유가, 나프타 가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 ③ 폴리머 부문

폴리머 제품은 기초유분을 원료로하여 생산되는 고체상태의 제품이며 주로 플라스틱 가공업에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합성수지는 가공을 통하여 생활용품, 포장재, 산업재,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원료로서, 모노머와 마찬가지로 나프타 가격과 경기변동에 따라 시황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2011년 이후 석유화학 설비의 증가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경기 회복의 변수, 유가의 상승 및 환율과 같은 주요한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신흥 국가 및 중국의 수요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환경에 대한 단순한 낙관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수요 성장 전망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사업 환경은 과거 몇 년간의 어려운 시기에서 다소 회복되는 국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전방산업(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등)에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일반적인 석유화학산업의 사이클은 9 ~ 10년 정도이며,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GDP 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4) 경쟁요소

범용제품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이며,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로 제품생산 기술과 품질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에탄계 가스원료나 나프타를 기초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동 등의 산유국에서는 에탄계 가스원료의 사용 비중이 높지만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기초원료로 거의 전량 나프타를 사용하고 있는 바, 기초원료인 나프타는 국내의 정유업체나 해외에서 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나프타의 수급이나 가격, 원유가, 환율 등에 따라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1970년부터 한시적으로 제정/시행해 오던 '석유화학공업 육성법'이 1986년 '공업발전법'의 발효로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유화의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1995년 이후 설비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어 업계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2013년은 유럽 재정위기 해결 지연,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을 둔화 및 미국, 일본의 양적 완화 등의 글로벌 경기악화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수익성이 하락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유가, 나프타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섰고 중반기부터 점차 기존 재고 소진, 수요 회복 등이 이어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국시장의 회복세가 크지 않고 하반기 이후 중국의 신증설, 북미 셰일가스 기반의 설비확대 등 위협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2012년 신설된 공장제품의 안정적인 가동에 따른 판매량은 증가하였습니다.

#### ① 기초유분/모노머 부문

세계 경기회복 지연 및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 영향으로 합성섬유 원료인 PTA는 가격 및 가동률 하락 등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적의 생산판매조정을 통해 수익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MEG는 작년 상반기 폴리에스터 시장 침체와 함께 약세였으나, 하반기 중동 일부 공장들의 정기보수와 유가 강세 등 대내외 여건이 호전되면서 소폭 회복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국 연안 재고과다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로 약세 분위기이나, 하반기 성수기 도래에 따른 수요 개선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점진적인 가격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EOA는 작년 중국에서 철도를 비롯한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콘크리트 감수제의 수요 증가로 판매와 수익이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년 초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둔화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판매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성고무 원재료인 BD의 경우 작년은 수요약세와 하반기 신증설 물량 출회로 약세였으나, 금년은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타이어 및 합성고무 수요증가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꾸준한 수요증가와 정기보수 영향으로 BZ 및 SM 시황은 대체로 양호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수급이 타이트하여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BZ은 역내 PX공장 신증설에 따른 물량 증가 영향으로 약보합 전망되고 있습니다.

#### ② 폴리머 부문

원재료인 나프타 투입원가가 안정적인 가운데 중국 시장의 수요부진, 미국 양적완화 축소, 동남아/신흥국의 환율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 및 중국 신증설 계획의 지연, 미국과 EU 등 선진국 경제 회복과 태양광산업 경기 회복기대에 의한 수요증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사 및 자회사인 타이탄 폴리머 제품의 수익성은 2012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천톤)

주요제품	당사 CAPA'	주요경쟁사 CAPA'		비고
HDPE	680	대한유화	530	-
LLDPE	290	한 화	355	-
PP	1,200	폴리미래	700	-
EG	1,040	LG 화학	180	-
PTA	1,050	삼성석유화학	2,000	-
PX	750	S - OIL	1,800	-
PET	520	TK 케미칼	280	-

주1)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자료 참조

주2) 상기 자료는 국내 사업장 기준임.

(3) 시장의 특성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등의 제품을 가공성형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가공성형업체를 주시장으로 하여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및 가격 변동에 큰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보통재(Commodity) 산업으로 경기변동형(Cyclical) 및 Globalized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석유화학산업이 경기변동을 갖게 되는 주요 원인은 수요·공급 상황에 있습니다. 제품별 수요의 증가량과 생산능력의 증가량 사이에는 반복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기 쉬우며 수요 증가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작을 때는 산업의 수익성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경쟁 요소 보다는 Global 산업환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석유화학산업이 최종 제품이 아닌 재료를 공급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간에 운임 등을 고려한 가격 차이 이외에는 제품 물성 등에서 차별화 하기 어려운 보통재 산업의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의 하나이므로 이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으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초유분 부문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인 Titan에서 납사를 주원료로 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등의 기초유분 제품과 M-X를 주원료로 하는 P-X, 벤젠 등의 기초유분 제품을 생산하여 대부분 당사의 모노머, 폴리머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하며 잉여제품 및 부산물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 ② 모노머 부문

모노머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품물성의 차별화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순도 등의 일정한 물리적 특성을 만족시키면 가격과 납기가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노머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며 생산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낮고 생산자 사이에 수익성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노머 제품은 PTA와 같은 파우더 제품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액체 제품이 많아 운송 및 저장이 자유롭지 않고, 특히 에틸렌과 부타디엔 등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압력과 온도 유지를 위한 특수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간 가격 차이가 커질 수도 있고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노머 제품은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폴리머 제품에 비해 장기 계약 등으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 폴리머 부문

폴리머 제품은 모노머(단량체)를 중합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대부분 펠렛 또는 파우더 형태의 고체 제품입니다.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인 Titan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대표적인 폴리머 제품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제품은 모노머와 마찬가지로 보통재 석유화학 제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노머와 달리 제품에 다양한 Grade가 존재하여 같은 폴리머 제품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제품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당사의 PP 제품도 약 100여개의 다른 종류의 Grade가 존재하며 각 Grade별로 시장 내에서 다른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범용 Grade를 제외하고는 단순 가격 경쟁으로 시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며 고객의 특정 Needs 및 용도를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Grade를 생산할 수 있는 제품 개발 능력 및 고객에 대한 기술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노머 제품에 비해 운반과 보관이 용이하여 전세계로 수출이 가능하며 재고 운용에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Uzbekistan National Holding Company Uzbekneftegaz와 한국 컨소시엄사의 합작사업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사업은 한국컨소시엄(당사, 가스공사, STX에너지)이 특별목적법인(Kor-Uz Gas Chemical Investment Ltd.)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회사인 Uzbekneftegaz와 50:50의 지분으로 합작투자회사(Uz-Kor Gas Chemical LLC)를 설립하여 수르길 가스전 개발, 개발된 가스 판매 및 HDPE, PP 생산을 위한 가스화학단지(GCC)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투자목적물 : 가스전 개발 및 가스 분리설비, 에틸렌/프로필렌 생산설비, 폴리머 생산설비, 각종 인프라 시설

- 총사업비 : 약 USD 39.2억

- 당사 투자금액 : 약 USD 3.51억 (지분율 : 24.5%, Debt : Equity ratio = 65% : 35%)

- 투자기간 : 2012년 ~ 2015년

- 예상효과 : 가스전 확보 및 주성분인 메탄을 연간 260만톤 우즈벡 정부에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과 같이 에탄 Base 경쟁력을 지닌 수르길 사업은 연간 HDPE 39만톤, PP 8만톤을 생산하여 중국시장 및 중앙아시아와 CIS국가에 신규 진출함으로써 당사의 매출 및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말레이시아 PolyButadiene Rubber 합작사업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인 롯데케미칼타이탄이 우베 흥산 주식회사, 미츠비시 상사와 40:10:40:10의 지분으로 BR제조 및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Malaysian Synthetic Rubber)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 투자목적물 : PolyButadiene Rubber 생산설비
- 사업위치 :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 주요제품 : PolyButadiene Rubber (BR)
- 투자금액 : 240억원 (당사투자분)
- 투자기간 : 2013년 ~ 2014년
- 예상효과 : 롯데케미칼의 합성고무 분야 신사업 진출로 기존 범용 제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PolyButadiene Rubber는 천연고무에 비해 내열성, 내마모성, 내수성 등이 우수하여 타이어, 내충격성 폴리스티렌(HIPS) 및 신발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대시장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고속 성장 산업이다. 특히, 타이어는 메이저 메이커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합성고무는 현재 석유화학 제품 중 가장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 특수고무 합작사업

이탈리아 국영석유회사인 ENI S.p.A의 100% 자회사인 Versalis S.p.A와 고부가 합성고무인 SBR, EPDM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LOTTE Versalis Elastomers Co., Ltd.)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임

- 투자목적물 : SBR 및 EPDM 생산설비
- 사업위치 : 한국 여수
- 주요제품 : SBR(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terpolymer)

#### (5) 조직도



롯데케미칼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연결 재무제표

1.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제 38(당)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37(전)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주식	제 38(당) 기		제 37(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4,614,354,225,960		4,178,674,705,4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	979,089,879,334		744,816,589,107	
2. 단기금융상품	4	311,516,213,804		191,600,034,538	
3. 매도가능금융자산	7	312,590,000		232,110,000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39	1,595,061,185,532		1,634,473,228,473	
5. 재고자산	9	1,628,759,888,662		1,500,592,461,088	
6. 금융리스채권	10	138,598,084		123,857,902	
7. 당기법인세자산		31,238,001,747		21,292,096,839	
8. 기타금융자산	8,21	6,877,836,580		16,219,176,632	
9. 기타유동자산	11	61,360,032,217		69,325,150,852	
II. 비유동자산			6,073,309,345,040		6,193,639,541,797
1. 장기금융상품	4	50,513,500,000		44,905,760,0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7	105,097,809,642		113,326,841,993	
3. 금융리스채권	10	3,389,012,815		3,527,610,907	
4. 관계기업투자	12	1,051,906,522,764		1,002,268,250,575	
5. 공동기업투자	13	400,170,679,159		331,628,513,514	
6. 유형자산	14	4,186,519,030,580		4,420,854,213,194	
7. 투자부동산	15	85,441,372,373		44,810,637,784	
8. 영업권	16	3,196,151,567		8,421,663,619	
9. 기타무형자산	17	20,592,373,765		24,573,553,345	
10. 기타금융자산	8	7,343,568,175		8,595,251,159	
11. 기타비유동자산	11	9,630,509,274		22,658,458,713	
12. 이연법인세자산	35	149,508,814,926		168,068,786,994	
자 산 총 계			10,687,663,571,000		10,372,314,247,228
부 채					
I. 유동부채			2,929,005,557,339		2,672,664,693,872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39	1,439,008,571,487		1,855,030,525,733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9	9,137,448,320		1,867,232,400	
3. 차입금	20	1,308,825,834,232		640,358,154,452	
4. 당기법인세부채		58,147,641,280		52,351,153,466	
5. 기타금융부채	21,22	30,403,051,396		52,207,622,561	
6. 기타유동부채	25	62,130,992,798		65,415,162,660	
7. 총당부채	24	21,352,017,826		5,434,842,600	
II. 비유동부채			1,464,199,290,492		1,615,534,766,738
1. 차입금	20	1,166,967,360,889		1,294,678,949,431	
2. 순확정급여부채	23	19,434,578,786		27,542,367,337	
3. 이연법인세부채	35	185,848,010,576		203,451,719,369	

과 목	주석	제 38(당) 기		제 37(전) 기	
4. 기타금융부채	21,22	87,940,318,227		84,198,116,558	
5. 기타비유동부채	25	4,009,022,014		5,544,110,276	
6. 총당부채	24	-		119,503,767	
부 채 총 계			4,393,204,847,831		4,288,199,460,610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256,119,973,079		6,043,424,852,327
1. 자본금	26	171,377,095,000		171,377,095,000	
2. 기타불입자본	27	477,284,160,127		472,058,339,430	
3. 이익잉여금	28	5,682,230,930,647		5,427,874,760,228	
4. 기타자본구성요소	29	(74,772,212,695)		(27,885,342,331)	
II. 비지배지분			38,338,750,090		40,689,934,291
자 본 총 계			6,294,458,723,169		6,084,114,786,61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687,663,571,000		10,372,314,247,228

##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38(당)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37(전)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 매출	30,39	16,438,935,362,784	15,902,803,025,026
II. 매출원가	36,39	15,527,174,061,634	15,109,197,299,993
III. 매출총이익		911,761,301,150	793,605,725,033
판매비와관리비	31,36	424,338,582,195	421,874,257,265
IV. 영업이익		487,422,718,955	371,731,467,768
금융수익	32	111,567,410,134	118,990,254,912
금융비용	33	169,637,458,738	142,418,364,487
지분법투자이익	12,13	(27,410,007,722)	7,535,793,899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2	-	1,443,659,971
기타영업외수익	34	194,417,588,132	205,046,192,958
기타영업외비용	34	221,767,890,249	175,460,639,849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4,592,360,512	386,868,365,172
법인세비용	35	88,767,377,493	60,407,846,243
VI. 계속영업연결순이익		285,824,983,019	326,460,518,929
VII. 중단영업연결순손실	46	-	(10,315,714,395)
VIII. 연결순이익		285,824,983,019	316,144,804,534
IX. 기타포괄손익		(49,616,382,351)	(163,160,844,48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649,580,274	(15,289,845,25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471,656,621		(11,064,910,179)
지분법이익잉여금	1,177,923,653		(4,224,935,079)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54,265,962,625)	(147,870,999,231)
지분법이익잉여금	(4,587,971,272)		(5,549,973,95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575,825,058		942,258,567
지분법자본변동	(8,274,614,787)		(9,111,565,037)
파생상품평가손익	(5,794,593,290)		8,707,078,250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36,184,608,334)		(142,858,797,058)
X. 연결총포괄이익		236,208,600,668	152,983,960,045
연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87,921,105,894	314,537,434,708
비지배지분		(2,096,122,875)	1,607,369,826
연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241,121,331,055	167,874,197,875
비지배지분		(4,912,730,387)	(14,890,237,830)

과 목	주석	제 38(당) 기		제 37(전) 기	
주당이익	37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8,546		9,865
계속영업주당순이익			8,546		10,046
중단영업주당순손실			-		(181)

### 3. 연결 자본 변동표

제 37(당)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 36(전) 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주주지분				비지배주주지분	총 계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I. 2012.01.01(전기초)	159,300,000,000	15,403,073,116	5,188,270,590,287	99,599,629,735	695,201,878,753	6,157,775,171,891
1. 배당금의 지급	-	-	(55,755,000,000)	-	(14,205,697,183)	(69,960,697,183)
2.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3,301,696,701	3,301,696,701
3.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	(2,770,403,694)	-	-	(157,214,941,142)	(159,985,344,836)
4. 종속기업 흡수합병	12,077,095,000	459,425,670,008	-	-	(471,502,765,008)	-
5. 총포괄이익	-	-	295,359,169,941	(127,484,972,066)	(14,890,237,830)	152,983,960,045
당기순이익	-	-	314,537,434,708	-	1,607,369,826	316,144,804,53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0,300,548,222)	-	(764,361,957)	(11,064,910,179)
지분법이익잉여금	-	-	(8,877,716,545)	-	(897,192,487)	(9,774,909,03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911,570,842	30,687,725	942,258,567
지분법자본변동	-	-	-	(9,761,287,086)	649,722,049	(9,111,565,037)
파생상품평가손익	-	-	-	8,707,078,250	-	8,707,078,250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27,342,334,072)	(15,516,462,986)	(142,858,797,058)
II. 2012.12.31(전기말)	171,377,095,000	472,058,339,430	5,427,874,760,228	(27,885,342,331)	40,689,934,291	6,084,114,786,618
III. 2013.01.01(당기초)	171,377,095,000	472,058,339,430	5,427,874,760,228	(27,885,342,331)	40,689,934,291	6,084,114,786,618
1. 배당금의 지급	-	-	(33,652,031,000)	-	-	(33,652,031,000)
2. 자기주식의 처분	-	10,145,750,454	-	-	-	10,145,750,454
3. 종속기업의 무상감자	-	(2,545,501,185)	-	-	2,545,501,185	-
4. 종속기업간 합병	-	(17,350,291)	-	-	16,045,001	(1,305,290)
5. 기타자본잉여금의 변동	-	(2,357,078,281)	-	-	-	(2,357,078,281)
6. 총포괄이익	-	-	288,008,201,419	(46,886,870,364)	(4,912,730,387)	236,208,600,668
당기순이익	-	-	287,921,105,894	-	(2,096,122,875)	285,824,983,01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3,497,143,144	-	(25,486,523)	3,471,656,621
지분법이익잉여금	-	-	(3,410,047,619)	-	-	(3,410,047,61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75,825,058	-	575,825,058
지분법자본변동	-	-	-	(8,274,614,787)	-	(8,274,614,787)
파생상품평가손익	-	-	-	(5,794,593,290)	-	(5,794,593,290)
해외사업환산손익	-	-	-	(33,393,487,345)	(2,791,120,989)	(36,184,608,334)
IV. 2013.12.31(당기말)	171,377,095,000	477,284,160,127	5,682,230,930,647	(74,772,212,696)	38,338,750,090	6,294,458,723,169

#### 4. 연결 현금흐름표

제 38(당)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37(전)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9,300,991,208		102,810,958,49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63,131,322,555		382,065,443,936	
(1) 당기순이익	285,824,983,019		316,144,804,534	
(2) 조정사항	713,811,744,327		570,099,396,280	
법인세비용	88,767,377,493		60,407,846,243	
이자수익	(24,704,715,624)		(41,078,513,740)	
이자비용	88,113,496,527		68,908,193,973	
배당금수익	(179,718,340)		(2,949,828,240)	
지분법투자이익	(25,584,427,541)		(27,913,874,391)	
지분법투자손실	52,994,435,263		20,378,080,49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586,662,72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7,655,871,990		1,974,149,24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1,323,482,030)		(3,584,584,80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364,84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33,975,258)		(29,601,329)	
외화환산손실	36,240,902,895		41,466,634,889	
외화환산이익	(49,424,628,375)		(82,857,112,563)	
파생상품평가손실	8,574,283,000		42,872,2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9,527,062,731)		(11,924,035,840)	
유형자산처분손실	706,789,850		613,962,567	
매출채권처분손실	-		3,280,276,440	
재고자산평가손실	(3,214,825,757)		11,893,449,520	
대손상각비(환입)	1,638,668,803		(3,937,456,215)	
기타의대손상각비	51,157,470		-	
감가상각비	505,001,149,310		457,097,225,785	
무형자산상각비	2,034,272,694		2,899,489,427	
지급임차료	115,532,401		115,843,775	
퇴직급여	19,524,091,677		16,861,225,041	
장기종업원급여	(1,594,963,902)		946,978,534	
영업권손상차손	5,225,512,052		10,804,777,488	
유형자산손상차손	11,334,560,255		2,361,761,726	
무형자산손상차손	2,808,345,472		5,103,901,564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1,443,659,971)	
잡이익	(1,404,381,620)		(1,661,953,126)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잡손실	17,478,353	80,297,680	
(3) 운전자본의 변동	(536,505,404,791)	(504,178,756,878)	
매출채권의 감소	391,718,641	62,128,770,800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1,068,706,987	(49,433,256,287)	
재고자산의 증가	(136,445,994,381)	(290,367,139,109)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32,209,190)	21,571,539	
기타자산의 감소	5,048,709,637	14,626,591,648	
매입채무의 감소	(337,107,620,089)	(11,851,076,615)	
기타채무의 감소	(59,139,313,187)	(133,585,164,815)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7,525,388,810)	(84,338,810,215)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7,413,580,072)	15,169,549,196	
총당부채의 증가	17,298,924,081	-	
퇴직급여채무의 감소	(22,649,358,408)	(26,549,793,020)	
2. 법인세의 납부	(103,830,331,347)	(279,254,485,44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9,790,220,535)	(446,876,824,53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2,393,543,047	480,411,412,55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6,219,929,397	370,054,063,491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7,500,000	116,312,21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96,511,161	246,094,443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754,663,871	28,109,839,329	
유형자산의 처분	15,695,801,248	16,035,102,102	
무형자산의 처분	-	300,000,000	
이자의 수취	24,010,719,030	45,100,172,731	
배당금의 수취	13,408,418,340	20,449,828,24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12,183,763,582)	(927,288,237,083)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14,893,473,576	4,872,526,24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7,000,000,000	5,262,95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254,275,000	1,925,106,43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98,817,350,432	275,650,936,36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63,237,844,835	8,410,67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1,804,621,255	26,543,463,675	
유형자산의 취득	289,253,668,290	598,090,268,096	
무형자산의 취득	298,319,638	11,757,191,279	
투자부동산의 취득	26,624,210,556	32,812,04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2,384,694,804	(157,460,766,20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51,342,694,131	1,083,063,496,829	
출자금의 납입	-	3,166,728,551	
차입금의 차입	3,142,592,554,131	1,067,858,208,278	
사채의 증가	398,551,100,000	-	
국고보조금의 수령	-	12,038,560,000	
자기주식의 처분	10,199,040,000	-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18,957,999,327)		(1,240,524,263,035)	
차입금의 상환	2,605,371,663,740		842,904,197,492	
사채의 상환	391,600,000,000		100,000,000,000	
금융리스부채의 감소	461,570,380		2,305,780,620	
종속기업투자의 추가취득	-		159,985,344,836	
기타자본잉여금의 변동	2,358,383,571			
배당금의 지급	33,652,031,000		69,960,697,183	
이자의 지급	85,514,350,636		65,368,242,904	
M.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H+H)		241,895,465,477		(501,526,632,246)
V. 기초의현금및현금성자산		744,816,589,107		1,251,251,599,062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622,175,250)		(4,908,377,709)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79,089,879,334		744,816,589,107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8(당)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37(전)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6년 3월 16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본사·부산·대구·대전·광주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1년 5월 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1992년 2월 307억원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보통주 1,714억원입니다.

지배기업은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 분 율
롯데물산(주)	10,718,818 주	31.27%
(주)호텔롯데	4,346,818 주	12.68%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자기주식	583,388 주	1.70%
기타	15,440,395 주	45.05%
계	34,275,419 주	100.0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구, 호석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	12.31	판매	100.00%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구, 가흥호석공정소료유한공사)	12.31	화학 제조	100.00%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구, 호석화학가흥유한공사)	12.31	화학 제조	100.00%	중국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ch. Bhd. (구, Titan Chemicals Corp. Bhd.)외 18개사	12.31	화학 제조	100.00%	말레이시아 등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 제조	99.51%	국내
테크항공(주)	12.31	부품 제조	100.00%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구, HPM Alabama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미국
Hefei Honam Engineering Plastics Co., Ltd. (주)케이피켄텍	12.31	화학 제조	60.00%	중국
(주)케이피켄텍	12.31	화학 제조	100.00%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구, Lotte Pakistan PTA Limited)	12.31	화학 제조	75.01%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K Limited	12.31	화학 제조	100.00%	영국
Lotte Powergen Limited	12.31	유틸리티 생산	100.00%	파키스탄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구, Howite Company Sp. zo.o)	12.31	판매	100.00%	폴란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전기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구, 호석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	12.31	판매	100.00%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구, 가흥호석공정소료유한공사)	12.31	화학 제조	100.00%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구, 호석화학가흥유한공사)	12.31	화학 제조	100.00%	중국
Honam Overseas Holdings Limited	12.31	투자	100.00%	홍콩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dn. Bhd. (구, Titan Chemicals Corp. Bhd.)외 18개사	12.31	화학 제조	100.00%	말레이시아 등
하오기술(주)	12.31	화학 제조	91.04%	국내
(주)삼박	12.31	화학 제조	100.00%	국내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 제조	100.00%	국내
데크항공(주)	12.31	부품 제조	56.04%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구, HPM Alabama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미국
Hefei Honam Engineering Plastics Co., Ltd.	12.31	화학 제조	60.00%	중국
(주)케이피캠텍	12.31	화학 제조	100.00%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구, Lotte Pakistan PTA Limited)	12.31	화학 제조	75.01%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K Limited	12.31	화학 제조	100.00%	영국
Lotte Powergen Limited	12.31	유틸리티 생산	100.00%	파키스탄

2) 당기 중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속기업명	사유
제외	Honam Overseas Holdings Limited	청산
	하오기술(주)	삼박엘에프티(주)에 피합병
	(주)삼박	삼박엘에프티(주)에 피합병
신규포함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구, Howlite Company Sp. zo.o)	신규인수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구, 호석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	48,256,548	44,484	24,447,142	-	23,853,890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구, 가흥호석공정소료유한공사)	37,901,892	14,882,584	21,525,489	-	31,258,987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구, 호석화학가흥유한공사)	36,471,607	87,528,270	40,609,794	50,947,647	32,442,436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ch. Bhd. (구, Titan Chemicals Corp. Bhd.)외 18개사	767,529,002	1,127,692,005	456,810,274	36,666,709	1,398,939,622	2,804,402
삼박엘에프티(주)	20,738,230	36,025,266	29,859,889	7,484,129	19,419,478	-
테크항공(주)	2,394,172	10,860,873	10,767,511	9,340,343	(6,852,809)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구, HPM Alabama Corp.)	2,278,989	8,459,213	2,807,568	-	7,930,634	-
Hefei Honam Engineering Plastics Co., Ltd. (주)케이피캠텍	5,224,459	16,667,459	1,515,509	6,093,151	14,283,258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구, Lotte Pakistan PTA Limited) (주1)	111,195,562	88,188,920	76,520,530	4,348,790	118,515,162	-
Lotte Chemical UK	180,047,168	144,159,066	253,117,843	40,035,181	31,053,210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구, Howlite Company Sp. zo.o)	2,061,881	7,241	1,930,089	-	139,033	-

(주1) Lotte Powergen Limited 을 포함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구, 호석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	39,988,960	66,731	19,543,342	-	20,512,349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구, 가흥호석공정소료유한공사)	30,606,668	12,705,997	17,827,786	-	25,484,879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구, 호석화학가흥유한공사)	27,482,353	87,878,089	27,097,363	51,856,883	36,406,196	-
Honam Overseas Holdings Limited	-	-	-	-	-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Sch. Bhd. (구, Titan Chemicals Corp. Bhd.)외 18개사	706,923,063	1,236,705,657	456,671,246	43,707,860	1,440,187,115	3,062,499
하오기술(주)	2,728,623	6,093,476	3,631,674	4,485,645	704,780	-
(주)삼박	6,635,119	18,761,577	14,654,863	2,476,873	8,264,960	-
삼박엘에프티(주)	14,770,940	14,212,127	16,379,880	407,880	12,195,307	-
테크항공(주)	8,865,531	11,980,887	14,142,005	12,365,899	(5,661,486)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구, HPM Alabama Corp.)	3,172,187	9,022,549	3,498,617	-	8,696,119	-
Hefei Honam Engineering Plastics Co., Ltd.	8,004,311	10,716,571	3,200,123	-	15,520,759	-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자분	비지배자분
(주)케이피켄텍	55,789,790	16,872,146	25,464,474	974,603	46,222,859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구, Lotte Pakistan PTA Limited) (주1)	119,709,788	112,111,703	87,420,520	8,810,670	135,590,301	-
Lotte Chemical UK	196,142,028	75,344,924	180,902,117	27,911,466	62,673,369	-

(주1) Lotte Powergen Limited 을 포함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게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 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2014년 3월 4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연결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은 기대수익률 대신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후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한편 가득되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한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상계되는 금융상품이 없으며 일괄상계약정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제정)

동 기준서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중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하는 기준서로서,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제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정)

동 기준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을 공시하고,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공정가치측정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의 세효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타의 기준서 및 해석서가 일부 존재하지만,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가 동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 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

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정사항 등이 일부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당기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여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 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 1039호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이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 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연결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 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8)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9)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4)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5)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

연결실체는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에 대해서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 (9)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주석 2.(11)참고)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0)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23)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1)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2)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 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 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1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

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 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1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 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 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 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 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 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 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 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 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 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 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1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구 축 물	15~50년
기 계 장 치	6~30년
차 량 운 반 구	4년~5년
공 구 와 기 구	4년~5년
비 품	4년~5년
기타의유형자산	1~5년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9)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 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0)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2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 · 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3)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자본구성요소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4)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5)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둘째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별도 재무제표

#### 1. 재무상태표

제 38(당)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37(전)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38(당) 기		제 37(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3,441,165,595,306		3,027,509,417,540
1. 현금및현금성자산	37	870,246,197,877		648,543,812,324	
2. 단기금융상품	4	301,493,041,351		186,621,846,423	
3. 매도가능금융자산	6	312,590,000		232,110,000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6	1,235,340,760,572		1,269,700,088,168	
5. 재고자산	8	1,016,480,402,694		891,908,409,125	
6. 금융리스채권	9	297,322,429		192,361,845	
7. 당기법인세자산		-		4,477,090,730	
8. 기타금융자산	7,20	4,018,373,864		13,685,885,568	
9. 기타유동자산	10	12,976,906,519		12,147,813,357	
II. 비유동자산			6,393,906,568,497		6,472,639,795,574
1. 장기금융상품	4	50,513,500,000		43,521,000,0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6	105,018,039,642		113,247,071,993	
3. 금융리스채권	9	5,208,404,997		5,505,727,434	
4. 종속기업투자	11	1,801,366,377,085		1,846,773,881,685	
5. 관계기업투자	12	1,227,593,638,660		1,119,876,333,116	
6. 공동기업투자	13	301,552,474,260		244,942,196,392	
7. 유형자산	14	2,789,495,182,151		2,983,464,411,051	
8. 투자부동산	15	85,219,492,337		47,813,561,314	
9. 무형자산	16	13,156,788,168		15,100,945,096	
10. 기타금융자산	7,20	10,917,711,197		46,597,227,493	
11. 기타비유동자산	10,39	3,864,960,000		5,797,440,000	
자 산 총 계			9,835,072,163,803		9,500,149,213,114
부 채					
I. 유동부채			2,066,343,586,459		1,870,380,289,26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36	940,348,652,071		1,371,753,813,348	
2. 차입금	18	1,024,001,661,498		375,482,119,968	
3. 당기법인세부채	32	57,752,038,620		51,803,765,816	
4. 기타금융부채	19,20	13,409,128,063		34,501,962,549	
5. 기타유동부채	22	30,832,106,207		36,838,627,585	
II. 비유동부채			1,333,806,705,402		1,505,410,829,492
1. 차입금	18	1,048,390,639,721		1,209,609,902,911	
2. 순확정급여부채	21	15,284,509,975		22,575,050,475	
3. 이연법인세부채	32	178,797,875,247		184,006,012,755	
4. 기타금융부채	19,20	87,900,485,122		84,190,341,558	
5. 기타비유동부채	22	3,433,195,337		5,029,521,793	
부 채 총 계			3,400,150,291,861		3,375,791,118,758
자 본					
I. 자본금	23	171,377,095,000		171,377,095,000	
II. 기타불입자본	24	771,055,831,115		763,267,158,942	

과 목	주석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II. 이익잉여금	25	5,493,496,632,733		5,185,502,759,088	
IV. 기타자본구성요소	26	(1,007,686,906)		4,211,081,326	
자 본 총 계			6,434,921,871,942		6,124,358,094,35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835,072,163,803		9,500,149,213,114

## 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8(당)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37(전)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 매출	27,36		12,273,440,415,644		9,095,887,163,330
II. 매출원가	33,36		11,459,615,658,202		8,454,954,182,119
III. 매출총이익			813,824,757,442		640,932,981,211
판매비와관리비	28,33		310,614,721,346		241,923,871,719
IV. 영업이익			503,210,036,096		399,009,109,492
금융수익	29		80,918,655,721		71,139,202,586
금융비용	30		120,368,714,734		102,394,585,401
기타영업외수익	31		181,226,214,119		167,093,615,252
기타영업외비용	31		217,101,007,825		100,361,645,123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27,885,183,377		434,485,696,806
법인세비용	32		89,074,237,351		91,449,721,708
VI. 당기순이익			338,810,946,026		343,035,975,098
VII. 기타포괄손익			(2,383,809,613)		(78,182,714)
1.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834,958,619		(9,663,772,69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	3,740,050,948		(12,750,928,968)	
법인세효과		(905,092,329)		3,087,156,270	
2.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5,218,768,232)		9,585,589,98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759,663,664		1,158,986,456	
파생상품평가손익		(7,644,582,177)		11,486,910,621	
법인세효과		1,666,150,281		(3,060,307,093)	
VIII. 총포괄이익			336,427,136,413		342,957,792,384
IX.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34		10,057		10,759

### 3. 자본 변동 표

제 38(당)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37(전)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매도가능금융 자산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I. 2012.01.01(전기초)	159,300,000,000	22,913,227,871	5,571,250,361	4,907,885,556,688	1,448,755,584	(6,823,264,242)	5,090,295,526,262
1. 배당금의 지급	-	-	-	(55,755,000,000)	-	-	(55,755,000,000)
2. 종속기업의 합병	12,077,095,000	-	734,782,680,710	-	-	-	746,859,775,710
3. 총포괄이익	-	-	-	333,372,202,400	878,511,734	8,707,078,250	342,957,992,384
당기순이익	-	-	-	343,035,975,098	-	-	343,035,975,098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9,663,772,698)	-	-	(9,663,772,698)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878,511,734	-	878,511,734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8,707,078,250	8,707,078,250
II. 2012.12.31(전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740,353,931,071	5,185,502,759,088	2,327,267,318	1,883,814,008	6,124,358,094,356
III. 2013.01.01(당기초)	171,377,095,000	22,913,227,871	740,353,931,071	5,185,502,759,088	2,327,267,318	1,883,814,008	6,124,358,094,356
1. 배당금의 지급	-	-	-	(33,652,031,000)	-	-	(33,652,031,000)
2. 자기주식의 처분	-	-	10,145,750,454	-	-	-	10,145,750,454
3. 기타자본잉여금변동	-	-	(2,357,078,281)	-	-	-	(2,357,078,281)
4. 총포괄이익	-	-	-	341,645,904,645	575,825,058	(5,794,593,290)	336,427,136,413
당기순이익	-	-	-	338,810,946,026	-	-	338,810,946,026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2,834,958,619	-	-	2,834,958,619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575,825,058	-	575,825,058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5,794,593,290)	(5,794,593,290)
IV. 2013.12.31(당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748,142,603,244	5,493,496,632,733	2,903,092,376	(3,910,779,282)	6,434,921,871,942

### 4. 현금흐름표

제 38(당)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37(전)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9,383,805,306		105,718,340,705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32,533,048,225		296,307,862,618	
(1) 당기순이익	338,810,946,026		343,035,975,098	
(2) 조정사항	569,981,719,401		392,216,256,440	
법인세비용	89,074,237,351		91,449,721,708	
이자수익	(22,864,623,588)		(18,423,137,581)	
이자비용	69,098,228,550		52,305,063,531	
배당금수익	(29,608,379,140)		(31,791,222,120)	
외환차익	(505,212,740)		-	
외화환산손실	7,015,642,268		7,629,818,025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외화환산이익	(12,941,876,386)	(50,094,100,122)
파생상품평가손실	8,574,283,000	42,872,22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39,200,000)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2,711,281,918)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33,975,258)	(29,601,329)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74,043,462,486	14,138,705,813
유형자산처분이익	(9,429,905,481)	(11,640,907,744)
유형자산처분손실	665,621,780	94,725,775
무형자산손상차손	1,084,631,075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990,298,224	(970,964,333)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1,856,374,709	(391,180,728)
기타의대손상각비	9,619,586,102	-
감가상각비	366,458,295,226	287,256,654,664
무형자산상각비	1,213,572,233	1,230,843,466
퇴직급여	17,617,785,446	10,883,396,326
장기종업원급여	(1,596,326,456)	440,103,007
잡이익	(1,350,000,000)	-
잡손실	-	6,600,000
(3) 운전자본의 변동	(576,259,617,202)	(438,944,368,920)
매출채권의 감소	14,871,827,953	43,387,358,849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8,131,400,197	(51,650,428,856)
재고자산의 증가	(126,562,291,793)	(189,238,479,434)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1,103,386,838	(1,079,844,780)
매입채무의 감소	(383,850,268,624)	(106,359,960,908)
기타채무의 감소	(60,620,857,365)	(102,127,923,622)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9,898,013,295)	(24,131,022,823)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8,266,526,115)	11,228,776,257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21,168,274,998)	(18,972,843,603)
2. 법인세의 납부	(83,149,242,919)	(190,589,521,91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5,671,790,420)	18,019,794,166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0,120,018,369	686,301,303,527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370,009,466,609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7,500,000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447,756,886	778,588,62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96,511,161	72,884,443
유형자산의 처분	15,576,296,084	15,584,870,491
무형자산의 처분	-	300,000,000
이자의 수취	22,183,575,098	21,242,216,311
배당금의 수취	29,608,379,140	31,791,222,120
종속기업 합병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46,522,054,928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75,791,808,789)	(668,281,509,361)

과 목	제 38(당) 기		제 37(전) 기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14,871,194,928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7,000,000,000		18,5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2,770,848,289		9,686,218,428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254,275,000		1,336,831,430	
유형자산의 취득	168,621,584,640		342,092,292,051	
투자부동산의 취득	26,624,210,556		-	
무형자산의 취득	16,705,380		5,498,658,5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205,361,696		7,105,902,592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98,817,350,432		275,650,936,36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56,610,277,868		8,410,67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0,890,936,578		68,426,092,84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361,313,461,327		997,831,525,544	
단기차입금의 차입	2,853,812,651,887		723,090,931,654	
장기차입금의 차입	98,750,669,440		274,740,593,890	
자기주식의 처분	10,199,040,000		-	
사채의 증가	398,551,1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80,422,524,749)		(929,405,432,700)	
단기차입금의 상환	2,483,481,865,272		723,093,962,342	
장기차입금의 상환	374,026,020		-	
유동성장기부채 상환	391,600,000,000		100,000,000,000	
이자의 지급	68,957,524,176		50,556,470,358	
배당금의 지급	33,652,031,000		55,755,000,000	
기타자본잉여금의 변동	2,357,078,281		-	
IV. 현금의 증가( I+II+III)		224,602,951,464		192,164,227,715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48,543,812,324		457,001,236,829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환율변동효과		(2,900,565,911)		(621,652,220)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70,246,197,877		648,543,812,324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38(당)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37(전)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6년 3월 16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 본사·부산·대구·대전·광주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1년 5월 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1992년 2월 307억원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보통주 1,714억원입니다.

당사는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롯데물산(주)	10,718,818 주	31.27%
(주)호텔롯데	4,346,818 주	12.68%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자기주식	583,388 주	1.70%
기타	15,440,395 주	45.05%
계	34,275,419 주	100.00%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재무제표는 2014년 3월 4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은 기대수익률 대신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후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한편 가득되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한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상계되는 금융상품이 없으며 일괄상계약정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제정)

동 기준서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중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하는 기준서로서,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

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제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연결재무제표).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공정가치측정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의 세효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타의 기준서 및 해석서가 일부 존재하지만,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

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 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정사항 등이 일부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당기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2)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용역의 제공

당사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 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5)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

당사는 라이선스 수수료 및 로열티수익에 대해서는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해서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외화환산

당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16)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5)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6)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 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9)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차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10)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및 제1028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10~50년
건축물	15~40년
기계장치	7~15년
차량운반구	4년
비품	4년
공구와기구	4년
기타의유형자산	1~5년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3)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5)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 · 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6)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 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3)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17)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8)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둘째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 38 기	제 37 기
주당배당금 (원)	1,000	1,000
배당총액 (원)	33,692,031,000	33,652,031,000
시가배당율 (%)	0.4	0.4

※ 시가배당율 산정시 시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 과거 1주일간의 증가를 산술평균한 주가를 사용 하였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안주석	1955.03.03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정동기	1953.08.1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이사회
박석환	1955.10.2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지택	1953.12.2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안주석	現.롯데케미칼 생산본부장(전무)	前.모노머사업 본부장(상무) 前.대산공장장(상무)	해당사항 없음
정동기	現.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前.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前.대검찰청 차장검사	해당사항 없음
박석환	-	前.駐 영국 대사 前.외교통상부 1차관	해당사항 없음
임지택	-	前.롯데제과 경리/구매담당상무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동기	1953.08.1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박석환	1955.10.2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정동기	現.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	前.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	해당사항 없음
박석환	-	前. 駐 영국 대사 前. 외교통상부 1차관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 ( 4 )	7 ( 4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50억원	250억원

※ 이사의 수 : 상기 이사의 수는 등기이사의 수입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등기이사 7명 및 비등기임원 에 대한 보수최고한도액임..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지규정 변경의 건

### 나. 의안의 요지

(1) 배경 : 이사대우 부장의 임원편성으로 신분적 모호성 (수행역할 및 보수수준은 임원이나 퇴직금 제도, 연차수당 등 일반직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해소 및 책임경영강화 (직급명칭 변경: 이사대우부장 → 이사대우)

(2)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안

현행	변경(안)	비고						
<p>2. 정의 임원은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p>	<p>2. 정의 임원은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하는 자와 제3조에 열거된 집행임원을 말한다.</p>	<p>임원 정의 명확화</p>						
<p>3. 지급 기준 3.1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임은 계속 근무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3. 지급 기준 3.1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임은 계속 근무로 본다.</p> <table border="1" data-bbox="711 633 1134 728"> <thead> <tr> <th>구분</th> <th>근속년수</th> <th>지급율</th> </tr> </thead> <tbody> <tr> <td>이사대우</td> <td>근속 매 1년</td> <td>2.5</td> </tr> </tbody> </table> <p>단,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임원은 개별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율에 따른다.</p>	구분	근속년수	지급율	이사대우	근속 매 1년	2.5	<p>(부)회장, 사장,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감사는 현행과 동일</p>
구분	근속년수	지급율						
이사대우	근속 매 1년	2.5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부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